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과 이에 기반한 정책 개발 결과 보고

2022. 01

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 본 보고서는 2021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This research was part of the project "Laying the Groundwork for Unification" fund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결과보고서 요약사항

사업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간행동의학연구소		
사업명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책 개발 연구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권준수	의과대학	교수
사업기간	2021.3.1.~2022.1.31	사업비	

1. 사업 목적

-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 구축
- 통일 정신건강 관련 정책 및 연구 영역의 사전 제시
- 향후 통일 과정과 정신건강 연구를 위한 국내외의 네트워크를 구축
- 통일에 대비한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사전 준비

2.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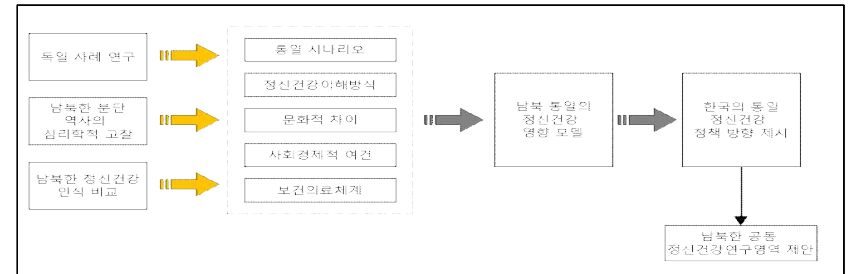


그림 2. 사업 모델

- 사례 연구 : 문헌 조사, 현지 방문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한 유사 사례와 시나리오의 검토

3. 사업 성과

- 남북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 개발의 시초를 마련함.
- 통일 정신건강 모델에 기반한 통일 대비 필요 정신건강 연구 영역 및 정책 영역 제시 및 우선 순위를 도출함.

CONTENTS

1. 사업 배경	1
2. 사업 내용	6
3. 사업 성과	10
4. 예산	43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45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책 개발 연구
- 기관명: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 사업비: 35백만원

□ 추진 배경 : 통일에 대비한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사전 준비

- 연구 및 정책 영역의 사전 대처
 - 통일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실제로 다가오기 전, 남북 모두의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전 대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영역을 제시함.
 - 이를 통해 다른 국가의 경우처럼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급변을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함.
- 국내외 연구진 네트워크 구축과 정례적 교류 체계 : 내외부 전문가 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 작업의 틀을 구축하여 향후 공동 연구 진행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일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적 1 :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 구축

- 해외 사례 연구 (독일, 러시아, 홍콩, 마카오 등)을 통한 역사적 경험의 검토, 국내외 및 북한 내 관련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남북한 간 정신건강 이해 방식의 시각차를 검토하고, 남북한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을 구축함.

□ 사업목적 2 : 통일 정신건강 관련 정책 및 연구 영역의 사전 제시

- 남북한 양측의 통일 관련 정신건강정책 및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 우선 순위 도출
-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과 통일 시나리오를 고려한 통일 시기별 필요 연구 영역 도출

□ 사업목적 3: 향후 통일 과정과 정신건강 연구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

- 국내 통일 관련 기구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이전 통일 과정을 겪은 독일,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은 러시아, 일국 양제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 홍콩 및 마카오의 학자들과의 국제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지속적인 교류의 기반을 만들
- 특히 중국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향후 북한 내 전문가 그룹과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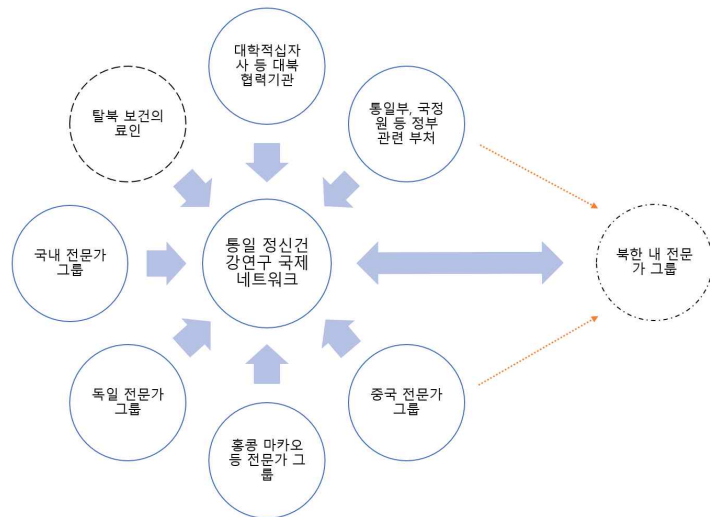


그림 4. 사업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모식도

2.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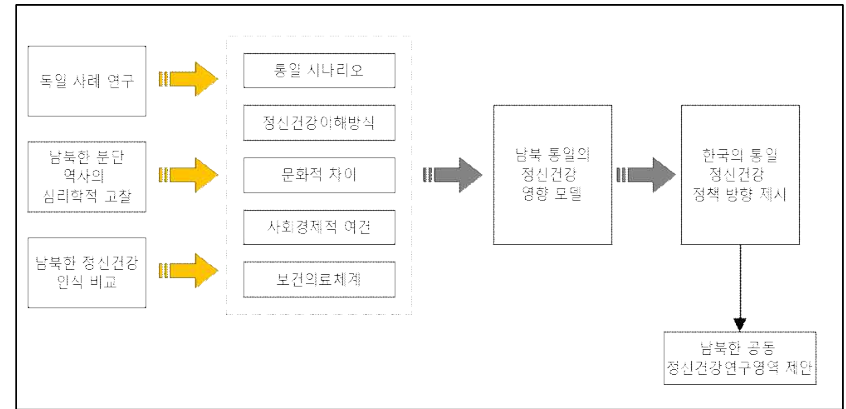


그림 5. 사업 모델

□ 사례 연구 : 문헌 조사, 현지 방문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한 유사 사례와 시나리오의 검토

- 사례연구 (1) 독일 : 문헌 고찰과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본 통일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영향 분석
 - ① 문헌 고찰 : 정신건강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거시적 분석 수행
 - 독일 통일 과정의 대규모의 사회변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향을 분석함.
 -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의 정신건강 지표/현황 변화의 추이를 분석함.
 - Post-traumatic embitterment syndrome 등 통일과 관련된 특이적 정신건강 현상을 분석함
 - 통일 전, 통일 과정, 통일 후 과정에 대한 단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 통일 시나리오별 시사점을 분석함.
 - ② 한-독 통일 연구 네트워크 구축
 - 한-독일 공동 세미나 : 한국과 독일 양국의 정신건강의학 뿐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영역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 체계를 구축함.

○ 사례연구 (2)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 : 급격한 사회 변화를 수반한 동구권 개방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영향 분석을 분석함.

① 문헌 고찰

- 급격한 개방을 통해 사회 체제가 바뀐 사회에서 겪은 심리사회적 영향 분석을 통해 급격한 사회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러시아, 발트삼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중동부유럽(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남카프카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 권역별 차이점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사례연구 (3) 일국 이체제 : 상대적으로 차분한 속도로 재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의 영향 평가

① 문헌 고찰

- 홍콩과 마카오 등의 일국 이체제에 관한 경험과 연구결과를 통해 통일 시 남북한 사회보장의 한시적 분리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함.

② 현지 방문 인터뷰와 자문 회의 : 홍콩 및 마카오 행정특구 (*코로나-19 영향 확대를 온라인을 통한 FGI 전문가 자문 및 다학제적 문헌 고찰을 통해 보완하였음)

○ 사례연구 (4) 기타국가 (문헌 고찰)

- ① 중국 양안관계에서의 통일 관련 정신건강 시사점 분석
- ② 예멘 통일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문제

○ 사례연구 (5) 대한민국 : 한국 분단 과정의 남한 주민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향 평가

- 남북 분단 과정의 남한에서의 심리적 영향의 역사적 분석 : 문헌 고찰을 통해 분단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통일 관련 사회 변화와 인식 구조의 변화를 추적하여 향후 통일 후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남북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 개발

○ (전문가 교류)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남한과 북한 정신건강 전문가 그룹의 시각차를 분석함.

- 전문가 교류를 통한 정신질환에 대한 용어 및 진단 방법의 비교 분석 : 북한 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공동 작업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이를 대신할 프록시(PROXY)로 탈북자 중 보건의로 등에 관련 종사했던 사람들 찾아 대신하는 것이 필요하여 사전설문지 제공을 통한 심층면접법을 통한 질적분석결과를 제시함.

- 국내와 중국 등지의 북한 의료와 공동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정신건강영역 및 관련 학자들의 다학제적 자문단을 구축함.

○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남북한 국민간 정신건강 이해 구조의 차이

- FGI (n=10+) 북한주민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 이에 대한 proxy로 최근 탈북한 새터민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방식을 연구.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방문중인 새터민을 통해 인식과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분석함.

○ 남북 통일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다면적 정신건강 영향 모델 제시

- [모델 제시] 사례연구와 대국민 인식조사의 경과를 종합하여,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정신건강 영향 모델 가설을 제안함.
- [컨센서스 도출] 다학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와 델파이를 통해 제안 모델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함.

□ 통일 정신건강 모델에 기반한 통일 대비 필요 정신건강 연구 영역 및 정책 영역 제시 및 우선 순위를 도출함

: 통일 과정에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적 연구와 횡문화적 비교를 통한 통일 이전 자료 축적 및 이에 필요한 준비 전략을 제시

○ 남북한 양측의 통일관련 정신건강정책 및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 우선 순위를 도출함

- 북한의 경우 보건 지표 분석을 통한 정책 우선 순위 요소를 제시함.
- 북한 급변 사태 시나리오의 경우 초기부터 재난정신건강정책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함.
- 남한의 경우 역시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을 미리 카운터할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 대책을 제안함.

○ 개발된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과 통일 시나리오를 고려한 통일 시기별 필요 정책 및 연구 영역 도출 및 제안

- 연구진과 자문단의 컨센서스를 통해 필요 연구 영역과 세부 과제를 도출함.
- 남북 공동연구 협력 토대 구축 및 공동 정신건강 연구 전략 제안 : 연구 영역 및 북한 내 조사 전략을 구축함.

□ 일정별 추진 사항

[표1] 일정별 추진사항 및 내용

일 정	추진 내용
2021. 3. 16.	연구자 Kiff-off 오프라인 미팅 (3월) - 논의 내용: 연구진 역할 분담 및 향후 세미나 계획 공유 -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서화연, 권도현
2021. 4. 16.	월간세미나 (4월) “키워드르 읽는 독일 통일과 평화” (연자: 이동기 교수/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8명
2021. 5. 03.	연구자 온-오프라인 미팅 (5월) - 논의 내용 : 4월 세미나 정리 및 5월 세미나 준비 - 참석자 : 손지훈, 서화연, 김민주, 권도현
2021. 5. 21.	월간세미나 (5월) “통일이 동독 주민들의 마음에 미친 영향” (연자: 이동기 교수/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5명
2021. 6. 04.	월간세미나 (6월) “감정사의 이해” (연자: 문수현 교수/ 한양대학교)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7명
2021. 6. 23.	연구자 온-오프라인 미팅 (6월) - 논의 내용: 4월 및 5월 세미나 정리 및 6월 세미나 준비 - 참석자 : 손지훈, 서화연, 김민주, 권도현 외 3명
2021. 7. 09.	월간세미나 (7월)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남북 관계의 전망” (연자: Tomasz Wierzbowski /한국외대)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5명

일 정	추진 내용
2021. 7. 16.	국제 미니 심포지엄 (7월) : Mini-Symposium “ Mental health and Korean unification.” 1. 좌장 :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 사회 : 손지훈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3. 강연 : ① Difficulties many sectors of North Korean society could have integrating into a unified Korea (연자: Chad O’Carroll (NK News CEO) ② “Soviet experiences after communism and the growing nostalgia in Russia for "the old days" (연자: 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4. 지정 토론 및 강연 : 전진용(국립정신건강센터), 김동혁(광주과학기술원),이훈상(국제보건개발파트너스) 5.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10명
2021. 8. 16.	연구자 온-오프라인 미팅 (8월) - 6월 및 7월 세미나 정리 및 중간보고서 준비 - 참석자 손지훈, 서화연, 김민주, 민범준, 권도현 외 5명
2021. 9. 06.	연구자 온-오프라인 미팅 (9월) 논의 내용: 중간보고서 중간점검 및 통합 심포지엄 사전 준비(연좌 확인 및 북 리뷰 점검) 참석자: 손지훈, 서화연, 김민주, 민범준, 전진용, 권도현 외 4명
2021. 10. 06.	연구자 온-오프라인 미팅 (10월) - 논의 내용: 중간보고서 최종점검 및 통합 심포지엄 준비 상황 확인, 강연 내용 사전 점검 - 참석자: 손지훈, 서화연, 김민주, 민범준, 권도현 외 5명
2021. 10. 13.	월간세미나 (10월 1차) “현재까지 진행된 통일 연구(연자: 김석주/삼성서울병원) -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4명
2021. 10. 27.	월간세미나 (10월 2차) -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일 조명(연자: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4명

일 정	추진 내용
2021. 11. 20.	통일평화기반 구축사업 심포지엄 Prof. Dr. med. Dipl.-Psych. Michael Linden 1. 사회: 김민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 좌장: 권준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 강연: ① “Embitterment in the aftermath of the German Reunification” (Prof. Dr. Michael Linden) ② “울분과 사회 속 정신건강” 한창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4.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23명
2021. 11. 30.-12. 15	탈북의료진 심층 인터뷰 진행 1. 대상자: 최OO (의사), 조OO (간호사) 2. 설문 작성 및 인터뷰 진행: 손지훈, 서화연, 김민주, 전진용, 권도현
2021. 12. 22.	연구자 온라인 미팅 및 최종보고서 사전검토 미팅 (12월) - 논의 내용: 탈북민 인터뷰 내용 공유 및 통합 심포지엄 이후 연구진 의견 수렴 -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1명

□ 참여 인력

○ 책임자

성 명	대 학	학 과	직 급
권준수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뇌인지과학과 의학과(검무)	교수
연구소(원)	구 내 전 화		
인간행동의학연구소	2961		

○ 주요 참여 인력

성 명	소 속	직 급	
홍순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손지훈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부교수	
서화연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조교수	
민범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조교수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과장	
권도현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과 이에 기반한 정책 개발』 보고서 책자 발간
 - 분단과 재통합 과정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북한의 정신건강과 정신의학에 대한 고찰, 사회 통합과정에서의 정신건강 연구 방향 고찰 등을 바탕으로 통일 대비 필요 정신건강 연구 영역 및 정책 영역 제시 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
- 정책 보고서 발간 이유
 - 21세기의 남한 사회에 있어서, 남북 통일이라는 명제는, 더 이상 지난 한세기를 관통했던 것 같은 민족의 지상 과제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네 세대가 지나가며,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강령이 새로운 젊은 세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수행하고 있는 인식조사에서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여전히 한국 사회는 강렬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남한의 대중의 시야에서는 그 민족이라는 틀에서 북한이라는 인구 집단이 점차 제외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현실임.
 - 21세기가 되고도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수사는 북한이 공영 언론을 통해 내보내는 강렬한 반외세적, 민족주의적 논평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상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은 남북 통일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인 과제임.
 - 또한 남북한을 두 국가로 바라보더라도 북한의 인권 문제의 해결 역시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발전된 사회로서의 남한의 책무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 역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 이렇게 바라볼 때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남한 사회가 갖게 되는 중요한 어젠더 중 하나가 됨.
 - 그 동안 신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적인 지원에 대한 모색은 상당히 진척되어왔으나, 상대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임. 이는 저개발국의 보건의료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소위 '필수 의료'로 구분되

는, 감염병을 포함한 단기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신체 질환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함.

-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였던 역사적인 맥락 이상으로, 북한 사회가 정신 건강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통일, 혹은 평화 수립 프로세스의 과정일 일부로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이기도 함.
- 우리가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 보고서는, 이런 맥락에서, 예상되는 통일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측하고, 어떤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지를 점검해 보고자 준비함. 우선적으로 사회적 변혁기를 거쳤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 통한 정신건강의 변화와 관련된 역사적 경험의 검토해 나감.
- 통일이라는 과정을 앞서 나아갔던 독일 사회에서, 통일 과정의 대규모의 사회변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의 정신건강 지표/현황 변화의 추이 검토하였으며 post-traumatic embitterment syndrome 등 통일과 관련된 특이적 정신건강 현상 분석함.
- 또한, 통일이라는 현상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다른 과정이나 위의 독일 통일과 겹치는 역사적 시공간에서 벌어졌던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수반한 개혁 개방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영향 분석을 시도함.
- 여기에는 러시아 뿐 아니라 발트삼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중동부유럽(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남카프카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 권역별 차이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역시 그 한 과제로 여겨짐.
- 이 외에도 우리와 비슷한 지속적인 대립관계 위에 성립되어 있는 중국-대만관계, 그리고 흡수 이후 두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홍콩/마카오의 중국내에서의 1국 2제 상황을 검토함.
- 이런 과정을 거치며 국내외 및 북한 내 관련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남북한 간 정신건강 이해 방식의 시각차를 검토하고, 남북한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남북한 양측의 통일 관련 정신건강정책 및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 우선 순위 도출하고,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과 통일 시나리오를 고려한 통일 정신건강 관련 정책 및 연구 영역의 사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통일 과정과 정신건강 연구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을 시도한 결과임.
- 여기에는 국내 통일 관련 기구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이전 통일 과정을 겪은 독일,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은 러시아, 일국 양제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 홍콩 및 마카오의 학자들과의 국제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지속적인 교류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정신의학자 뿐 아니라, 인문학적, 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 그룹과의 커넥션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임.
- 이런 과정은 무엇보다 통일, 혹은 평화적 2체계 구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실제로 다가오기 전, 남북 모두의 심리 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전 대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고자 함을 염두한 작업이며, 이를 통해 다른 국가의 경우처럼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변혁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결과임.
- 이 과정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종적 연구와 횡문화적 비교를 통한 통일 이전 자료 축적이 필요한 점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남북한 양측의 통일관련 정신건강정책 및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 제안을 확립함.
-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보건학적 지원 뿐 아니라, 남한 내에서의 부정적인 사회적 감정 분출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통일 과정에서 북측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울분과 좌절의 감정을 논의하기도 전에, 이미 남한 내부에 울분과 증오를 포함한 부정 감정이 팽배하며,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감정이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확인함.
- 통일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 남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울분과 증오의 감정을 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담론이 무엇보다 요청되는 상황, 그 위에 서야만 남한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회, 소수자, 인권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임.

○ 주기적인 국내외 세미나를 통한 통일정신 건강연구 국제네트워크 구축

- ※ 일정별 연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학술세미나 관련 자료(포스터 및 강연 자료 등)를 첨부하여 내용을 작성하였음.

그림 6. 상반기 월간세미나 일정 포스터

통일과정의 정신건강 영향모델 구축을 위한 남북한 시각연구 및 정신건강 정책 비교 연구 월간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 연구소입니다.
 인간행동의학 연구소에서 2021년 4월부터 정기적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한반도 통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통일 문제의 쟁점과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1년 매월 금요일 (시간은 세미나에 따라 상이. 아래 표 참조)
 ■ 방식 : 4월까지의 Zoom 온라인 회의, 5월 이후 방역 수칙이 변경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주 제	일 시	연 자
● 키워드로 읽는 독일 통일과 평화	4/16(금) 오전 10시	* 이동기 (강원대)
● 통일이 동독 주민들의 마음에 미친 영향	5/21(금) 오전 10시	* 이동기 (강원대)
● 감정사의 이해	6/4(금) 오후 2시	* 문수현 (한양대)
●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남북 관계의 전망	6/18(금) 오전 10시	* Tomasz Wierzbowski (한국외대)
● Mini-Symposium: "Mental health and Korean unification."	7/16(금) 오전 10시	* Chad O Carroll (NK News) * Andrei Lankov (국민대) * 박석일 (LINK)

※ 향후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 하반기 월간세미나 일정 안내문

통일과정의 정신건강 영향모델 구축을 위한 남북한 시각연구 및 정신건강 정책 비교 연구 월간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2021년 10월부터 정기적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한반도 통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정기 세미나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통일 문제의 쟁점과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시간은 세미나에 따라 상이. 아래 표 참조
- 방식: Zoom 온라인 회의, 향후 방역 수칙이 변경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주제	일시	연자
◦ 현재까지 진행된 통일 연구	10/13(수) 오전 10시	* 김석주 (삼성서울병원)
◦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일 조명	10/27(수) 오전 11시	*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 향후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참가 방법
 - 접속 주소 : 온라인 참가 방법

- 링크주소: <https://us02web.zoom.us/j/81056850212?pwd=dVZkdVZlUkVBRkR3LjBjZDh7ZSx0> (=클릭)
- 비밀번호: 579548
- 회의 ID: 820 5685 0212

* 문의 주실 사항은 본 연구소의 통일 연구 담당 권도현 연구원 (maummine@gmail.com)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장 권준수

그

[2021. 4. 16일자 이동기 교수 통일 세미나 질의 응답 요약, 강의 자료 별첨1)]

□ 키워드로 읽는 독일 통일과 평화

그림 8. 2021/4/16 일자 이동기 교수 통일 세미나 온라인 강의 자료 1.

독일통일의 비밀과 역설

(서울대 의대, 2021.04.16)



이동기(강원대 평화학과 교수)



주제: 키워드로 읽는 독일 통일과 평화 (독일 통일의 비밀과 역설)

시간: 2021년 4월 16일(금요일) 오전 10 시

연자: 이동기 교수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1) * 발제 자료 공개 가능(이동기 교수)

○ 서독 정부의 규범적 인권 정책을 통한 남북한 통일의 합의

그림 9. 2021/4/16 일자 이동기 교수 통일 세미나 온라인 강의 자료 2.



- 서독과 동독의 흡수통일 과정에서 1963년부터 1989년 말 동독 체제 붕괴까지 서독 정부와 민간 협력기관들은 동독 교도소로부터 '정치범' 33,755명을 거래를 통해 석방하고, 석방 대가로 서독은 동독에게 전 기간에 걸쳐 총 34억 마르크(DM) 상당의 현물을 지불함. 1964년부터 1977년까지는 정치범 1인당 40,000마르크(DM: 약 3천만원), 그 뒤에는 95,847마르크(DM: 약 8천만원)로 상향조정 지불함.

- 서독 정부는 인권을 둘러싼 정치 선전의 고성과 이데올로기 질타가 실제 고통과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꾸준히 환기함. 규범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의 인권문제에 대한 반복적 문제제기와 그 상황에 대한 감시와 추적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동독 공산 정권과 화해협력 관계 및 다양한 영역의 구체적인 공동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심화시킴.

- 동독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한 전제. 대화와 협상, 양보와 조정을 통해 서독으로 들어오는 동독의 합법이주자들은 점점 늘었고 동·서독 간 왕래와 방문이 대규모화 되면서 사실상 분단의 장벽에 균열됨.

- 서독 정부의 '규범적 인권정책'은 동독 체제의 전복이나 고립을 겨냥하는 '대결적 인권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 소결론 : 규범적 인권정책은 '현실적 인권정책'과 함께 서로 보조

○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

- 북한 인권을 정치 주제로 내세우는 적지 않은 정치세력과 민간단체가 대결과 규범의 차원을 혼동. 북한에 맞서 대결과 적대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인권 규범과 원칙을 옹호하고 충고 가능.

- 국내의 일부 오해와는 달리, 서독 정부가 만든 '잘쓰기터 중앙기록보존소'도 사실 동독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정치 선전도구가 아니라 인권유린의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용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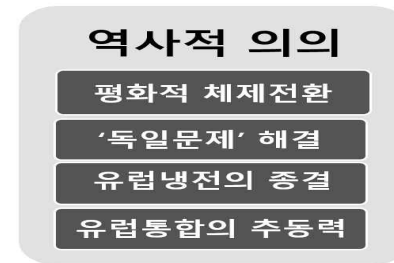
- 북한 인권문제 논의를 '코리아 인권' 개념과 관점을 갖고 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임.

- 인권문제는 항상 구체적인 사람들의 고통과 특정한 방식의 과제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오히려 체제 작동과 사회 관계의 차이에 더 주목해야 함.

-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고 한국 사회의 인권개선도 선제 내지 병행 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인권' 문제를 '분단문제'로 환원할 수 없음

○ 독일의 냉전시기 외교가 주는 시사점

그림 10. 2021/4/16 일자 이동기 교수 통일 세미나 온라인 강의 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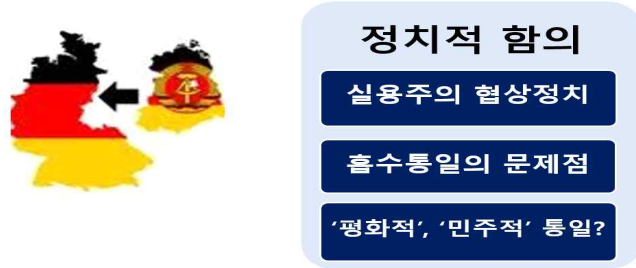


- 독일의 냉전 시기 외교는 1945년 전과 차이가 있음, 유엔 창립과 핵전쟁 공멸 위기의 긴급 조정 및 세계시민사회의 역할 등은 국제정치와 외교의 양상에 새로운 변화를 자극함.

- 1989에서 1990년 독일통일 외교는 그런 변화를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변화를 추동. 국가지도자나 정부수반이 단독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었고 한 번의 결정적인 '춤추는 회의'가 아니라 수시로 통화하고 서신을 보냈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양자 간 및 다자간 만남이 빈발하였음.

- 외교무대는 노골적인 국가 이익이나 이데올로기 수사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안보, 평화, 화해, 동반, 협력, 공동체, 미래 등의 용어들이 지배하고 있었음.

그림 11. 2021/4/16 일자 이동기 교수 통일 세미나 온라인 강의 자료 4.



- “독일은 원래 무력으로 추진했던 지위를 평화적 방법으로 얻었다. 원하던 원치 않든 독일은 유럽의 핵심 열강이다.” (마틴 볼프, 2014)
- “대륙을 지배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대륙에 편입되기에는 너무 강했다.” -루트비히 데히오(Ludwig Dehio) 1955.
- 1990년 독일은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적당한 방식으로 편입되었고 적당한 방식으로 주도함. 독일은 처음으로 강약을 조절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 오랜 ‘독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독일의 동서독 통일에 대한 외교 정책이 한반도 외교 정책에 주는 시사점

-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전략과 입장을 상수로 보고 한반도 주민들의 행위 여지와 결정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모든 단견과 전망 부재의 태도를 폐기해야 함. 남북은 주변 열강의 한반도 관련 정책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이 고정적이라고 볼 이유가 없음. 남북의 ‘운동’에 따라 열강의 태도는 변화
- 한반도의 지정학의 운명으로 한반도의 외교를 설명하고 예단할 일도 아니지만 이상주의로 동아시아 질서를 구상하는 일에 간헐 일도 아님. 정치공동체가 직면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고려하되구성원의 더 많은 자유와 안전,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고 확대하는 길을 계속 찾는 것이 외교임.

○ 결론 :더 나은 통일의 길을 위해: 통합과 연합의 의미

- 통일 후 동서독 사회는 단순히 서로 이질적인 두 사회의 균등한 통합 과정이 아니었음. 한쪽은 다른 한쪽에 편입하며 모든 것을 뒤집고 새로 출발하며 도전과 실험에 직면했고, 다른 한쪽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음.
- 심지어 대다수 서독 사람들은 경험세계와 일상문화에서 특별한 변화를 겪지 않았음. 통일독일의 동서독 통합은 기본적으로 주류 다수 사회와 소수자 집단의 관계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함. 소수자 집단들, 이를테면 인종과 문화가

다른 이주민 출신 사회구성원들, 특히 여성 이주자들의 통일 경험 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됨.

- 양복 입은 중·노년 남성들이 ‘통일’과 ‘번영’을 말할 때 어딘가에는 항상 폭력과 배제의 기억과 경험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들이 뒤돌아 서있음.

※ 추가 질의 응답 사항

Q1. 권준수 교수님 : 오스트리아 이야기 하셨는데 오스트리아의 길을 가고 독일은 나눠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눠졌는데 그런 것을 보면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눠지는 것도 그렇고, 통일 관점 나눠는 것도 그렇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 민족성의 차이,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함. 서구가 개인주의 적이라고 하지만, 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더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닌가.

A1. 이동기 교수님 : 민족성은 신화라고 본다. 정치 사회적 경험이 쌓인 특성은 있을 수 있다. 민족성이라 보기 어렵다. 인문 사회영역에서는 그렇게 안 볼, 합의는 동의. 한국에 들어오면 근본주의적으로 변하는 모습. 한국에 들어오면 급진화 되고, 교회도 그러하고, 한국에서 남아있는 것이라 한다면 단일한 민족성이라 하기는 어려우나 근본주의적 지향, 사유를 밀어가는 것. 어떤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음. 근원적으로, 활력 일어나고 하는 등.

그러한 측면이 단점이 대화 협상, 조정, 융화, 공존, 포용하는 일상 문화, 정치 문화를 가지는데 근본주의적인 것이 강하여 장애, 연정이 어려워짐. 오스트리아 정치가들은 서로 수시로 진화하고 만남. 김구, 김경일, 조만식 등등 45년 이후 만날 수 있었음. 그런데 48년 4월이 지나서 너무 늦게 만남. 이러한 근본주의적 정치 지향이 아니라면 더 많은 소통이 있을 수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 때도 그러함. 독일, 오스트리아가 다 그런 건 아니다. 홀로코스트도 그런 맥락에서 발생, 그러나 45년 이후 핀란드, 독일 등 정치 문화 경험을 보면, 사회, 경제 문제로 싸울 수 있으나 민족, 평화 문제는 진보, 보후 좌우가 타협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합의 문화, 정치 문화 개선, 통일 문화 개선 등에 대해서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Q2. 손지훈 교수님 : 45년 이후 이야기였는데 45년 이전의 정치, 토론 문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정치적 문화, 통일과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긴 것인지 그 이전에도 면밀히 있었는데 우리가 외부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건지

A2. 이동기 교수님: **45년 전에도 없지 않았다.** 합의나 정치적 상생 위한 노력 있었다. 정치나 사회 흐름이 달라도 점점 찾는 노력 했으나 잘 안되었다. 각각의 모든 정치 세력이 단일한 결론 내리지 않았으나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합의나 결론 내림. 사민당의 인정받는 메르켈, 아랍 난민 180만명 받는 등 보수정당임에도 활동, **45년 기민당의 결의 때문에 그렇다. 파시즘의 경험을 딛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결과 나치 왔다고 생각한 보수주의자들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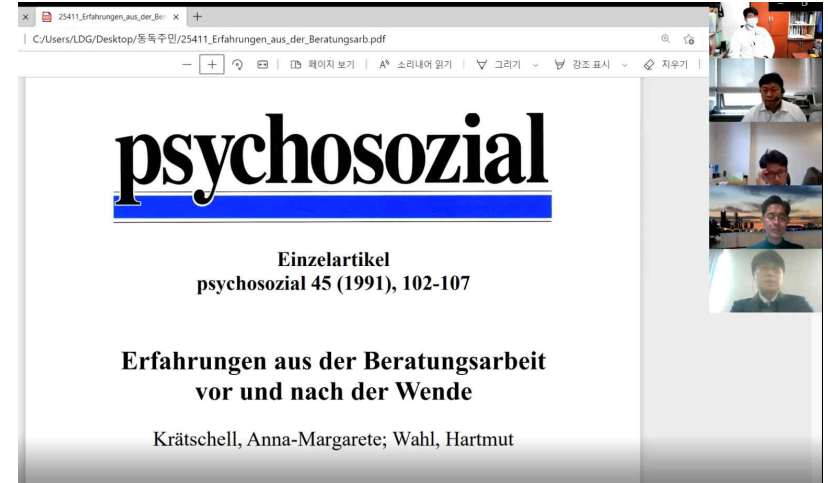
○ 질의에 대한 이동기 교수 종합 의견 : 45년 나치즘 경험을 통해 두 가지 생각

1. **극우 세력과 단절, 우파의 끝은 기민당. 극우정당과 거리 명확히 하고 막아야 함.** 맨 오른쪽을 차지. 우파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극우를 만들지 않음. 두 번 다시 분립 하지 않고자 20년 내내 4개 정당으로 나뉨. 보수 정당이 권력 장악 못함.
2. **새로운 종류의 작은 정당이 나오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포용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과 한정당에 있기 어려운데 답음. 카톨릭계 노동운동한 사람과 개신교 기업가 통합 등. 우파의 진중함도 끌어오고 좌파도 수용하는 등. 20세기 전반기 파국적 경험을 잘 수용함. 한국과 동아시아의 경우 역사적 경험을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끌어올려야하지 못한 부분 아쉬움.

[2021. 5. 21일자 이동기 교수 강의 노트 요약]

■ 통일이 독일 주민의 마음에 미친 영향2)

그림 12. 2021/5/21 일자 이동기 교수 통일 세미나 온라인 강의 자료 1.



주제: 통일이 독일 주민의 마음에 미친 영향

시간: 2021년 5월 21일(금요일) 오전 10 시

연자: 이동기 교수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 서론 - 현재의 독일 통일 이후 상황

- 독일 통일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음. 현대 사회의 사건은 성공이나 실패를 단 순화하기 어렵고, 역설과 반전이 있기 마련. 실패라고 보기에는 의미 있는 성취 인점에서 긍정적인 발전임.
- 그러나 빠질 수 없는 것은 독일 통일이 어떤 지점에서 특정한 길을 가지 않고 더 나은 가능성을 버림으로써 상당한 국제 정치상의 위기, 사회적 결함, 인간적 고통을 초래했다. 독일 통일은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대립된 것을 완전히 철폐

2) 참조: 강연 자료는 미제공됨, 이동기 교수 강연 시작하며 독일 통일 직후부터 30년 동안 꾸준히 잡지 내는 팀을 발제 전 소개. 동독 주민들에 대해 정신건강, 심리학 등에 대한 주제로 저널이나 주제가 꽤 나온 상태. 약 50권 가량의 책. e-book으로도 제공됨. 전환(통일) 전과 후의 상담활동의 경험(1991년 잡지)-통일전후에 동독 사람들의 정신의 상처, 고통, 현재 상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겨있음. 해방의 경험으로 맞이한 케이스. 해당 자료 관련하여 추후 자료 제공 요청 허가 받음.

하고 나토가 동유럽으로 확장되어 러시아까지 포위한 방식이 아니라, 나토 바르샤바가 해체되고 러시아까지 포함된 유럽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길임.

- 나토가 동유럽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전쟁까지는 안 일어나니까 평화적이라고 생각했으나,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경쟁과 민족충돌이 지금까지도 남음. 독일 통일도 그런 측면이 작용하였고, 그 이후 러시아가 고립감,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서 동유럽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이후에 터질 후 있음.

○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 방식 (동독 주민들의 선택)

-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이 선택한 흡수통일로 내용적으로 동독체제가 무너지고 서독체제로 이식하는 과정에 서독식의 태도, 문화, 태도, 사람이 들어오면서 식민지에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상태에 놓인 것이 동독의 상태.
- 법적으로 동독 주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억압적, 강제적, 일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은 흡수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하고 동독이 서독에게 가입함. 흡수통일이긴 한데, 그 뒤에 동독 주민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남지 않을 수도 있었으며, 불만이나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함. 이 과정이 생략되었기에 동독 주민들이 주변화, 소외감 느낌.
- 이는 통일이 의미 있는 성취이나 더 나은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2008년에 동서독 간 기회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으나, 2021년 현재는 더 심각함

표. 통일 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사회문제 3가지 강연 내용 (*이동기 교수 의견)

■ 통일 이후 나타난 대표적 사회문제	■ 강연 중 언급된 내용
1. 구조적 불평등	- 수입, 취업률, 실업자가 동독이 서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 동독 사람이기 때문에 취직 안 되거나 기회가 박탈됨.
2. 사회적 차별	- 문화적, 인지의 차원에서 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
3. 문화적 박탈감	- 문화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계속 억압하고 배제하는 기제로 작용함 - 문화에 대하여 언론에 다루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다루지 않음

- 종합하여 동독이 힘든 것은 통일만의 문제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인해 전통적 노동방식이 달라지고 사회복지가 줄어들면서 경쟁원리가 생겨난 세계적인 변화 속에 동독이 휩쓸려 들어감. 후진적인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큰 변화에 가장 앞서서 겪고 있는 것.
- 통일 후 '이행사회': 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일상, 문화의 식, 경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이행기간이 소요됨.

○ 독일의 경우, 불균형을 경험. 서독인과 동독인은 충격정도가 다름.

- 서독인들은 아무 충격이 없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 동독인들이 서독에서 적응 못하고 대부분 동독으로 돌아간다. 서독에서 동독인임을 커밍아웃하지 않음. 차별받기 때문. 출발지점이 다른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 지금까지 삶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체제를 부정하고 나의 삶이 부정당함. 대표적인 사항을 아래 8가지로 정리함.
- 동독 체제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의미가 상실됨. 자신의 삶이 전면 부정되는 상황. 과거는 부정되고 현재는 흔들려 미래의 삶의 방향을 찾기가 힘들, 흥미로운 것은 서독인들은 이것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 통일은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에 불과함. 별일 아니라고 생각함. 통일에 대한 무게감이 다름.
- 통일된 독일의 여론, 언론, 학교, 학계 등은 대부분 서독 사람들이 장악했으니 문제 자체가 문제로 이해되지 않음.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서독-통일, 동독-전환 이라고 함.

○ 동독 3세대의 출현

- 동독 3세대: 청소년 시절 동독 체제 붕괴, 통일, 서독체제도 경험한 사람들. 사회화가 시작될 때는 동독, 사춘기 시절에 싹 다 무너지고 재사회화가 되었음.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사회규범과 방식이 다 틀렸다고 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도덕적 정당성도 없고, 방향을 알 수 없음.
- 혼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야함. 이 아이들이 어른 역할을 하며,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서독식의 삶이 뭔지를 빠르게 습득하게 되는 결과 오히려 부모가 아이가, 아이가 부모가 되는 전도현상. 가령 이주민 공동체-2세대들이 부모를 돌봐주고 안내하는 역할. 유럽에서 가족친밀도가 높은 곳 이태리, 동독->응집력이 좋다는 의견도 나타남.
- 젠더적 차이: 동독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해방된 사회. 여성 취업 동독 70-80%, 서독 30%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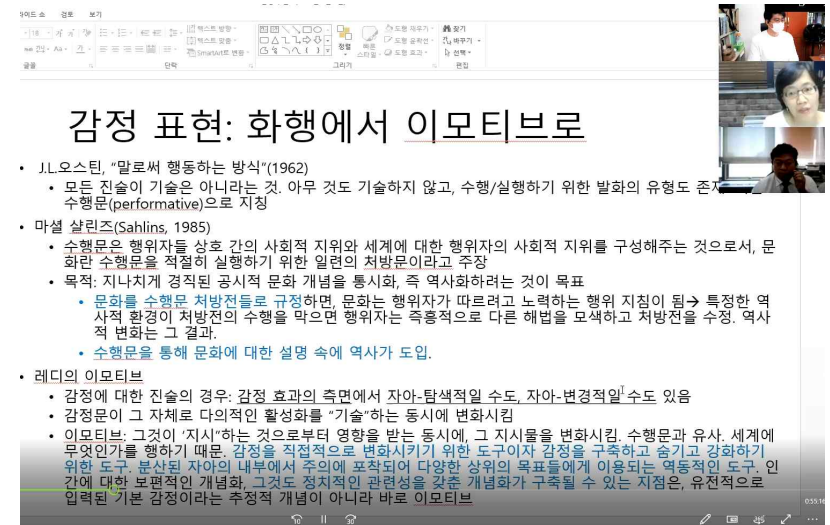
○ 이행사회의 주제 영역(8개)

1. 언어 변화(동독의 공식 용어는 사회주의 용어라 제도와 함께 정치를 표현했던 언어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서독의 언어가 들어옴/ 통일 과정에서 생긴 언어, 새로운 용어)
2. 언론 매체(갑자기 다양한 정보에 노출,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짐. 그러나 동독의 고통이 배제당하면서 대항 언론)
3. 서독마크 유입과 소비 열풍과 소유권 인식(10배 많은 돈이 생겨 신나게 돈쓰) & 각종 분쟁의 소용돌이.
4. 노동세계 변화(탈 산업화, 공장이 거의 문닫으면서 실업률 70%증가->서독시스템 유입).
5. 동독독재 유산 청산(슈타지-독립부처 감시의 규모에 충격. 공식 직원 9만명, 비공식 직원 18만명, 곳곳에 활약.). 공포, 배신, 무력, 신뢰 상실함. 정신건강 관련부분. 가족이 대리사회 역할을 해야하는데, 가족에서 오히려 공포나 두려움, 신뢰 상실의 근거가 됨. 분열이 심하고 자살케이스도 꽤 있다. 1991~1995년 정신과 진료가 증가함.
6. 새로운 민족 감정
7. 동서독인들의 자아상과 타자상 등장: 직접 접촉을 통해 이질성 강화.
8. 하위문화 발생.

[2021. 06. 04일자 문수현 교수 강의 노트 요약]3)

■ 감정사의 이해

그림 13. 2021/6/04 일자 문수현 교수 통일 세미나 온라인 강의 자료 1.



주제: 감정사의 이해

시간: 2021년 6월 04일(금요일) 오전 10 시

연자: 문수현 교수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서양현대사, 독일사회사)

- 참고 문헌 : 윌리엄 레디, 김학이 - 감정의 향해
- 인지심리학에서 감정 - 과잉 학습된 습관.
- 구성주의적 감정인류학의 문제점
 - 혹 설드의 4가지 테제 - 감정은 규범적. 감정과 감정표현은 다름. 규범적 감정과 실제 감정이 어긋날 경우 감정 고통 발생.
 - 변화를 설명하는 문제 - 외부로부터 근대 세계 침투로부터 발생 한다고 파악
 - 내적 다양성의 문제 - 다양성은 부차적 => 윌리엄 레디, 이모티브로 함.

3) 본 강연의 강의 자료는 저작권등 문제로 미제공 되었음.

- 활성화 주의 (실험심리학에서 차용)
 - 내적 통일성을 갖춘 데카르트적인 주체와 다르고 담론 구조의 부산물에 불과한 포스트구조주의적인 허구적인 자아가 아님.
- 감정실천양상 <-> 감정통제
 - 감정 항해, 감정 통제에 대한 감정 피난처 등장. 묘비명을 통해 감정 체제 분석.
 - 냉정 규범의 배경, 고도화된 분업, 관료적 경영, 소비주의, 젠더 역할의 변화, 교육학의 변화, 종교적 불확실성, 심리학의 대두.
 - 명예= 사라진 감정의 사례
- 독일 감정사 - 막스프랑크 연구소 중심
 - 우테 프레버트 : 감정 경제 / 제도들은 하나의 도덕적 지배력을 행사, 하나의 특정한 감정경제 안에서 사회화 시킴.
 - 20세기 독일사 - 혐오, 격분, 증오, 원한, 분노, 기쁨, 명예, 치욕.
- 동독을 상징하는 감정 (* 문수현 교수의 견해)
 - 1) 혐오(Ekel/Disgust)
 - 광범위한 혐오표현, 해충작전(1952), 사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들 : 유해행위와 파괴행위를 자행.
 - 2) 기쁨
 -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할 것을 요구함
 - 3) 희망
 - 새로운 독일 국가, 희망을 포기한 경우, 희망의 부재로 인한 통일 이후 상황임
 - 호네커 후임 에곤 크렌츠: 천안문 진압 이후 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무언가가 행해졌어야 함.
 - 4) 사랑.
 - 이른 결혼으로 이혼율 32% 세계 1위였음.
 - 5) 질투
 -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없이 노동자의 공동체만 있을 뿐이란 원칙과 다름. 실제로는 사료에서 질투의 보편화 나타남.
 - 6) 호기심
 - 오스탈기 노스텔지어 (Ostalgie 동독에 대한 향수)와 연대,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정치적 평가
 - 7) 수치
 - 극우체제 지지의 경향과 이어짐, 침묵, 방어하기.

- 8) 자부심
- 9) 분노
 - 시민들의 분노가 공적인 장에서 언어로 표출되지 못함.
 - 자본주의 서구에 대항하는 시위로 국한됨.
- 양의 감정사의 문헌 참고 고려해 볼만 함
 - 거대한 불확정성, 전암상태의 문제, 치료의 불확정성.
- 불안의 시대에 대한 감정사적 이해
 - 공적인 담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감정이 지배적 감정인가, 특정한 감정이 공적으로 언급.
 - 불안은 건강한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불안감으로 가득 차서 대하지 않거나, 이 경우 불안은 문제적 감정도 아니라는 것. 불안이 육체 및 치료 결정과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함.
 - 불안에 대한 도덕적 평가도 항상 바뀌었고, 오늘날은 불안의 병리화가 되었고, 탈스티그마로 나아가는 가운데 적합하고 합리적인 반응으로서의 불안을 대함.
 - 감정은 새롭게 합리적인 것의 대립항을 거쳐 역사적 변화 이후 감정의 합리화와 학문화가 이뤄짐.
- PC(폴리티컬 코렉트니스(Political Correctness: PC) 운동에 대한 논의.
 - 과도하게 규범하게 되는 점.
 - 감정사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연구하는 것은 아님. 프랑스 혁명, 감정 통제하는 경우 감정 피난처 두지 않고 뚫고 나오려는 경향.
- 감정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방법
 - 진술에 근거해서 감정적 패턴 찾아내는 방법 또는 일반적 여러 감정들 키워드 가지고 건져올리는 방법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실증적 근거로 해석해내는 방법. 감정들이 제도들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제도화 연대, 실업률 등, 학교 시스템 등 남은 편지, 스포츠 제도들 등, 감정 키워드들 결부하고 있는 것 같음.
 - 정신과는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큰 부분이나 감정을 사회적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 놀라움. 감정이라는 것이 사라지기도 한다는게 맞는 것 같음. 명예이야기 와닿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무도 명예 이야기 잘 안하는 이야기. 감정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동물적 본성도 있으나 학습에서도 만들어짐.

- 북한과 남한 자체가 감정이 느끼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북한과 남한 정치 시스템이 달라서 감정 시스템 다름. 동유럽 친구들 인기 없고 프랑스 인기 있고 하는 이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행정 시스템에 해결하려고하지 개인주의 강한 입장에서는 몰래 일러바치는 느낌이라고 함.
 - 연대를 강조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으로 느껴짐. 현저히 다른 감정 체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부분, 대화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있을 것 같다. 자본주의화 된 남한과 사회주의의 북한의 만남.
 - 프로이트 독일 사람, 감정을 다룬 방법이 뿌리가 비슷함. 프로이트 방법론과 유사한 철학적 부류가 아닌가 싶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감정, 공통적 감정.
- 결론: 현재 동독의 지배적 감정은 치욕, 우리는 정의를 원했지만 법치를 얻게 되었다는 의견이 동독인 다수의 감정임.

[2021.07.09. 일자 Tomasz Wierzbowski 교수 세미나 발제 요약자료 (*대외비)]

■ Tomasz Wierzbowski **북한사회가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남북관계의 전망**

그림 13. 2021/7/09 일자 Tomasz Wierzbowski 국제세미나 온라인 강의모습.




※ 주의: 보안 문제로 자세한 내용 언급 자체 부탁, 질의 에 대한 답변 및 강연 자료 미제공 됨, 기존 일정은 6/18일였으나 강사 사정(보안 문제)으로 7/9로 연기됨. 강의를 녹화 중단 요청으로 강연 요약 불가 및 관련 내용 제공 불가하여 주제만 언급 가능함. (사유: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민감 정보)

- 주제: 북한사회가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남북관계의 전망
- 시간: 2021년 7월 9일(금요일) 오전 10 시
- 연자: Tomasz Wierzbowski 교수 (한국외대 EU연구소)

그림 14. 2021/7/16 일자 국제 미니심포지엄 홍보자료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책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 구축사업)

미니 심포지엄 :
남북 통일 과정에서의 예측되는 사회 변화와 정신 건강 문제

○ 일시 : 2021년 7월 16일 10:00-12:00
○ 장소 : **ZOOM 비공개 세미나 (*외부유출 금지)**
○ 주최 및 주관 : 서울대학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 접속 주소 : 온라인 참가 방법
- 링크 주소 : <https://url.kr/pldkqh> (*클릭)
- 비밀번호: 579548
- 회의 ID: 820 5685 0212
○ 사전 접수 : 

[통일연구 심포지엄 신청] 제목으로 1) 성명, 2) 소속, 3) 연락처 기재하여
다음의 주소로 이메일 송부 (* 참석자 전원에게 소정의 사은품 증정 예정)
* 사전 접수 담당 권도현 연구원 : maummine@gmail.com

○ 주제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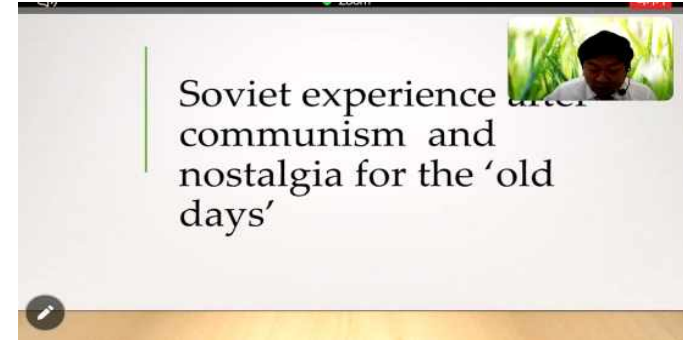
시간	내용	발표자
10:00- 10:05	인사말 (원격 혹은 녹화 송출)	개회사 :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발제	좌장 : 손지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0:05- 10:45	Difficulties many sectors of North Korean society could have integrating into a unified Korea	Chad O'Carroll (NK News CEO)
10:45-11:25	Soviet experiences after communism and the growing nostalgia in Russia for "the old days"	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토론	전진용(국립정신건강센터) 김동혁(광주과학기술원) 이훈상(국제보건개발파트너스)
11:25-11:55	지정 토론	
11:55-12:00	폐회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장 권 준 수

4) * 주의: 보안 문제로 자세한 내용 언급 자제 부탁, 질의 에 대한 답변 및 강연자료 미제공됨, 김동혁(광주과학기술대학) 교수 토론만 일부 제공 가능.

■ **Soviet experiences after communism and the growing nostalgia in Russia for "the old days" - 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사회학과)5**

그림 14. 2021/716 일자Andrei Lankov 미니심포지엄 온라인 강의모습 1.



* 공산주의 이후 소련의 경험과 러시아에서의 "옛날"에 대한 향수 증가

○ 공산주의 붕괴 과정에서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6)

- 잔혹하고 억압적인 공산주의 정부, 자유를 원하는 국민.
- 공산주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때로는 기근이 들었음. 사람들은 빵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었음.
- 공산주의 제도에 도전한 이후, 공산주의 무너지고 모두가 기뻐하였으나 푸틴(러시아)을 비롯한 일부 전직 공산주의자들이 국민의 승리를 가로 채감.

5) * 주의 : 대외비 및 강사의 신변 보호요청으로 강사 얼굴 비공개함

6) 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발제문 일부 (대외비) Difficulties many sectors of North Korean society could have integrating into a unified Korea

* The story of the post-communist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s usually told in the following way
- There was a communist government, brutal and repressive. people wanted freedom.
- Under the communism, there was a shortage of everything, sometimes famine, people were standing long lines just get some bread.
- they the people rose and challenged the system. It collapsed, and everybody was happy but then Putin(in Russia) and some other ex-communists stole the people' victory

그림 15. 2021/716 일자 Andrei Lankov 미니심포지엄 온라인 강의모습 2.



○ 정치적 자유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⁷⁾

- 정치적 자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음. 정치적 자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식인이었지만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함.

7) Political freedoms were not seen as important
 - there were few people who cared about political freedom. they were largely intellectuals who could be politically influential, but hardly constituted a majority

■ Difficulties many sectors of North Korean society could have integrating into a unified Korea - Chad O'Carroll (NK News CEO) -대외비⁸⁾

그림 14. 2021/716 일자 Chad O'Carroll 미니심포지엄 온라인 강의자료 일부(공개허용자료).



- Andrei Nikolaevich(란코프 교수)는 소련 붕괴 직후인 1990년대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러시아의 현 상황을 폭로하고 그들이 어떻게 러시아 정부를 권위주의 체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논의함.
- Chad O'Carroll의 연구는 또한 현재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최선 출처에서 추출한 풍부한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현황을 조명하였음. 물질적·심리적 격차가 깊어지면 남북한이 조만간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에 동의함.

※ Andrei Nikolaevich 연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⁹⁾

① 첫째, 소련 붕괴의 원인; 둘째, 러시아의 현재 정치 및 경제 상황; 셋째,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

Andrei Nikolaevich는 소련 국민이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타도하게 된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구의 경제적 풍요에 감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특히 소비에트 국민의 생활수준을 한국이나 파키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미국이나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불만이 더 심해진다고 강조함.

8) * 강연 자료 별첨(대외비) - 내부 연구진에서만 오프라인상 공유 가능. 대외비로 절대 유출 불가함 또한 강사의 신변 보호요청으로 강사 얼굴 비공개함

9) * 통일 한국에 있어서 통합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북한 사회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강연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

위 주장의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몰락 원인을 정의하는 데에는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류 서구 학계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붕괴의 근본 원인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의 경제적 비효율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소비에트 경제 시스템의 상대적인 비효율이 전체 체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음. 거대한 정치체의 몰락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경제체제의 모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② 둘째, 푸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당시 푸틴 정부가 러시아의 경제 안정에 대한 기여도 소련 붕괴 직후 예상과 달리 러시아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1990년대 말 이후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면서 특히 푸틴 집권 기간의 안정화와 많은 러시아인들은 소비에트 시대에 대한 향수를 느꼈다는 점, 특히 199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 국민들이 겪었던 경제적 고통이 당시 실시된 충격요법의 결과라는 점, 그러나 무엇이 러시아 정치경제의 상대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푸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당시 푸틴 정부가 러시아의 경제 안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의견.

③ 셋째, 최근 러시아인들이 표현하는 소비에트 시대 노스텔지어의 특징 러시아인들이 단지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의 위상과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회복지제도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련의 보다 혁명적인 측면에 진지하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 발제에 대한 연구진 종합 의견 정리

- 소련 붕괴의 원인에 대한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의 관점은 서구 주류 학계의 관점(소위 전체주의적 관점)과 완전히 다름. 그는 소비에트 시대가 소비에트 연방 국민에게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최악의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함. 다시 말해, Alexei Yurcak이 말했듯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국가 사회주의의 다양한 이분법적 모델은 1980년대 소련이 직면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체제 붕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었음.
-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억압과 저항, 진실과 거짓, 공식 문화와 비공식 문화, 국가와 인민,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와 같은 이분법이 작용, 국가 주도의 목표와 개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복잡하게 얽힌 다양성의 의미, 가치, 이상, 현실에 대해서는 간과함.

[2021.10.13.일자 월간세미나 (10월 1차) 김석주 교수님 강의 요약]

▣ 김석주 교수 한국에서 진행된 통일관련 정신건강의학 연구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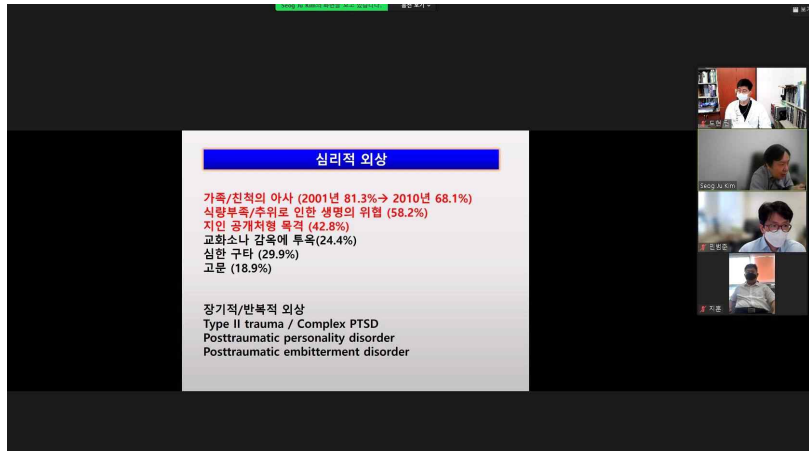
그림 15. 2021/10/13 일자 김석주 교수님 강의 모습 1.



- 세미나 주제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통일관련 정신건강의학 연구”
- 연자: 김석주/삼성서울병원)
-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5명

- 개인의 무의식이 중시되지 않고, 자본주의적 사고가 제거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이 없는, 70년 이상 분단되어 있는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의학적 치료로는 처음에는 접근하기 쉽지 않음.

그림 16. 2021/10/13 일자 김석주 교수님 강의 모습 2.



- 무의식을 다루는 정신치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지행동치료, 노출치료 등은 비교적 초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사회의 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개인의 경험이 또한 중요함.
- 북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치료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2021. 10. 27일자 월간세미나 (10월 2차) 전진용 교수 강의 요약]

그림 17. 2021/10/27 일자 전진용 교수님 강의 모습 및 자료

2018. 1. 8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9일 회담 전망을 묻자 "앞을 밝힐 겁니다"라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9시30분을 회담장인 평문청 남북지역 '평화의집'으로 이동하면서 남북 위계진 이 회담에 대한 소감과 전망을 묻자 "북남당국이 성실한 자세로 오늘 회담을 진지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평화의집 로비에서 북측 대표단을 맞은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장관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리 위원장은 조 장관에 "축하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선권/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장관 취임) 축하합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예, 환영합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라는 주요 의제에 맞춰 오늘 남북회담 테이블에는 '평창수'가 놓였습니다.

극장국가 북한
가짜스와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연극작가 전진용의 시선]

▣ 세미나 주제 : “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일 조명 ”

- 연자: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 참석자: 권준수, 손지훈, 홍순범, 민범준, 전진용, 서화연, 권도현, 김동혁, 김민주 외 4명

그림 18. 2021/11/29 일자 2021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심포지엄 개최 포스터

2021 통일평화기반 구축사업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통일평화기반 구축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울분(Embitterment)'에 대한 국내외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의 한국 사회와 통일 이후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독일 Charité 대학병원의 Michael Linden 교수는 울분 연구의 선구자로서 '외상후 울분장애'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이의 치료 방법을 발전시켰으며, Primary Care Psychiatry, Rehabilitation, Pharmacopsychiatry,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의 편집자를 역임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한창수 교수는 회복력과 외상 후 성장, 건강한 사회적 관계와 울분에 대한 국내외의 대표적 전문가로서, 국제 학술지에 240편 이상의 논문을 기고하였고, 정신과 교과서 Embitterment를 공동 저술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위한 두 권의 교양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현재의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통일 이후 변화에 대한 통찰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17:00~18:30
장 소 | ZOOM 온라인 회의 링크주소 ▶ <https://url.kr/a771z>
주최 및 주관 |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개최 방식 | 행사 진행 : 온라인 개최
 참여 방식 : 온라인 개최

주제 및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7:00-17:05	개회	사회 김민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7:05-17:15	연자 소개	좌장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7:15-17:45	Embitterment and problems of German reunification	Michael Linden (Charité Universitätsmedizin)
17:45-18:00	주제토론: 울분과 사회 속 정신건강	한창수 Changsu Han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8:00-18:30	질의 응답	좌장 권준수 Jun Soo Kwon
18:30	폐회	사회 김민주 Agnus M, Kim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장 권 준 수

10)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 통합 학술 발제 가운데 11월 29일 저녁 세션담당

통일평화기반 구축사업 국제 심포지엄 개최

그림 19. 2021/11/29 국제심포지엄 강연모습 1.

Disappointments and misunderstandings of the German reunification

East and West Germans expected the economy in the East to skyrocket immediately after the reunification. For example, real estate prizes rose to incredible highs.

But:

- the industry and the economy broke down.
- people were out of work.
- young people emigrated to western areas.
- the solidarity tax was introduced and immense sums of money were transferred from the West to the East, but still for years the economy was down.
- Real estate prizes fell to a low.
- East Germans were disappointed as the economy did not flourish.
- West Germans were disappointed as they spend so much money for the East, but these people obviously were unable to get their act together, complained, and did not show any gratitude („Jammer Ossies“ = lamenting Easterners)



- 좌장 : 권준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강연: ① “Embitterment in the aftermath of the German Reunification” (Prof. Dr. Michael Linden)
 ② “울분과 사회 속 정신건강” 한창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사회: 김민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참석자 : 손지훈, 강슬기, 권도현, 김사랑, 김민주, 김선희, 민범준, 박민철, 서수진, 서화연, 서혜리, 신정훈, 연명희, 이영령, 이유빈, 조성준, 전진용, 한창수, Michael Linden, Alex 등.

그림 20. 2021/11/29 국제심포지엄 강연모습 2.

Embitterment can persist even after remission of depressive symptoms

Discussion

Patient with remitted depressive disorder could have still remaining embitterment symptoms especially related to 'anger' and 'revenge'

- There is no study about the effect of remaining embitterment symptoms to depression progress.
- It may be a potential risk factor of relapse of depression.
- Linden et al. suggested the role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wisdom therapy to manage embitterment sympt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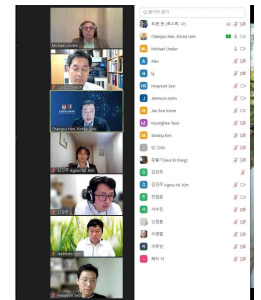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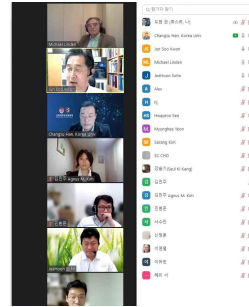


그림 21. 2021/11/29 국제심포지엄 강연모습 3.

North Korean Defectors



[2021.11-12월] 탈북의료진 심층 인터뷰 진행

탈북 의료인 대상 온-오프라인 인터뷰 진행

1. 면담 및 사전 설문작성 : 손지훈, 서화연, 김민주, 전진용, 권도현
2. 인터뷰 대상자: 조OO (간호사), 최OO (의사)

그림 22. 탈북 의료인 대상 오프라인 면담모습 (*방역 원칙을 준수하며 진행함)



북한 출신 의료인 대상 인터뷰 사항1)

○ 기본인적사항

1.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2.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3. 학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북한, 우리나라)?
4.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 북한을 떠나신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1) 서화연 선생님 작성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7. 우리나라에 오신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 북한에서의 정신건강

1. 정신건강의 개념에 대응하는 북한의 표현?
2. 정신질환의 개념에 대응하는 북한의 표현? 있다면 그 정신질환의 종류? 원인에 대한 이해? 치료방법?
3. 북한에서 마음의 고통(우울, 불안, 불면 등)을 다루는 방법? 본인은 어떻게 다뤘는지?
4. 북한에서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종교인, 무당, 의사, 마을 지도자 등)
5. 환청 망상이 있는 사람의 발견과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6. 북한의 중독 문제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치료되는지?
7.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돌봄이 특별히 필요한 인구 집단은? (즉, 정신질환의 고위험군)
(cf. 우울증의 위험인자는 어렸을 때 부모의 상실, 실직, 여성, 독거, 이혼/별거, 저소득, 20대)

○ 북한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1. 의료체계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혹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과)가 존재하는지?
2. 하는 역할은?

○ 남한에서의 정신건강

1. 남한에서 정신건강(or 정신질환)의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계기, 과정은?
2.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3. 혼란정신질환(우울, 불안, 불면)의 치료에 대한 생각?
4. 정신과적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때 도움을 촉진하거나 방해한 요소들?
5. 실제 정신과적 도움을 받은 본인이나 주변 탈북민의 경험

○ 통일 이후 예측

1. 북한 체제 붕괴(통일) 이후 가장 시급한 북한 주민의 건강 문제/북한 사회의 보건 문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북한 체제 붕괴(통일) 이후 가장 시급한 북한 주민의 정신 건강 문제/ 북한 사회의 정신 보건 문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이러한 문제의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 그 외

1. (북한에 있을 당시)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계획단계에서의 과제구성 및 진행의 적절성,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과정의 적절하게 이루어짐.

○ 사업의 효율성

- ※ 사업의 효율성: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 정도
- 1차 단계 : 외국과의 비교정책적 문헌고찰을 통해 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1차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음.
- 2차 단계: 다학제적 구성의 연구진들간의 온-오프라인 연동한 국내외 세미나를 효율적으로 구성함.
- 3차 단계: 구체화된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탈북의료진과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대면 인터뷰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자체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하였음.

○ 사업의 영향력

- ※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효과 평가
- 탈북의료진을 대상으로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통일 이후의 탈북민 관련 정신건강대책 관련 정책 효과성 등을 평가하였음.
- 다학제적 구성을 통한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연계되는 연구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사업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함.

○ 사업의 발전가능성

- ※ 사업 종료 이후 사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 평가
- 평가분야별로 해외 연구진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방안 계획안을 구축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연구진행을 구현하여 향후 사업 발전가능성을 확보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당초 연구계획 상으로는 통일을 선제적으로 경험한 독일이나 양안관계의 사례로서 중극-대만등의 해외 방문을 통해서 향후 통일한국이 나아가야할 방

향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를 대면으로 진행하고, 공공기관 방문 및 현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자 하였으나, Covid-19 전염병 확산 우려로 말미암아 해외 직접 방문 및 체류가 어려워 온라인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물리적 제약이 있었음.

□ 향후 계획

○ 향후 실행 계획 및 우선 순위 연구 방향

- 북한의 상황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전개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계획의 우선 순위에 대한 정책적 연구 역시 필요함.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정책의 영역은 아래와 같음.

표 7. 정신건강 행동 계획의 영역 (WHO, 2005)

- Coordinating Unit;
- Financing;
- Legislation and human rights;
- Organization of services;
-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 Promotion,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 Essential drug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 Advocacy;
- Quality improvement;
- Information systems;
- Research and evaluation of policies and services;
- Intersectoral collaboration.

- 북한형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 모형 : 평양 등 일부 병원 체계가 갖춰진 곳에서 종합병원 내 정신과 급성기 입원 체계를 갖추고 평가 및 약물/상담 치료 가능한 인적 역량을 확보
- 북한형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 중증 정신질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형 정신의료시설 모델 개발을 통해, 수용으로 인한 만성화를 회피.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중증정신질환 외래치료센터
- 치료/재활 테리파 제공 낮 시설 (낮병원 등)
- 다학제 진료팀의 방문 및 응급 대응 체계
- 소규모 단기 입시 입원 병상

- 북한형 정신재활/주거모형 개발 : 지역사회 케어를 염두에둔, 만성화 된 정신질환자의 주거와 재활을 위한 정신재활 시스템 제안. 초기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의 일부 가능으로 고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북한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면허의 제도화 연구 : 현재로서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정신건강 전문가 그룹의 형성이 필요하나, 현재 북한 의료체계 내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까지 감당한 설계가 필요함

2) 통일 이후 남북한의 개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진전된 연구

○ 문화적 신드롬 : 한국형 울분장애와 화병 추가 연구

- 독일 통일 이후의 경험 뿐 아니라, 현대 남한 사회에서의 울분과 분노의 문제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황으로, 한국형 울분장애와 문화적 신드롬인 화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울분 감정에 대한 시민 사회 용 정신건강 교육 자료 개발 : 시민 대중의 억울함, 불공정에 대한 분노에 대한 감정적 표출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감정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 대중서적 및 교육 자료 등의 개발
- 한국형 외상후 울분장애 (PTED) 관련 진단 기준 정교화 : 현재로서는 DSM/ICD 체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진단이나,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임상적으로는 상당히 relevant 한 진단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신의학적 진단기준과 감별진단을 정교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비병리적인 울분과 병리적인 울분감정에 대한 구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또한 울분장애의 자연사/예후 연구를 통해 울분장애의 사회적 결과와 질병부담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DSM/ICD등 진단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일과의 공동 보고

1) 북한지역 내 지역사회 형 정신건강 체계 도입에 관한 추가연구

○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는 일부 수용형 정신병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신질환자 수용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 외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정신질환 수용 정책으로 진행하였다가 다시 지역사회 개혁을 하는 이 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지역사회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맥락에서 남북한간 정신건강 문제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됨.

연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형 외상후 울분장애의 비약물치료 가이드라인 및 치료 모듈 개발 : 정신치료 형태의 외상후 울분장애 치료의 가이드라인 및 테라피 모듈의 개발이 필요함. 특히 행동화 (acting out), 2차 이득, 신체화 경향 등 나타나는 비적응적인 행동을 극복하고 울분과 상처를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신치료적 접근이 요청될 것으로 생각됨.
- 한국형 외상후 울분장애의 약물 치료 가이드라인 : 공존 정신병리 증상을 포함한 정신적 증상에 대한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의 근거 산출 필요

3) 북한 내 알코올과 물질사용 관련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

- 현재 외부로 제공되고 있는 근거는 없으나 북한내 약물문제, 그리고 알코올 사용 문제의 만연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약물 문제의 규모, 그리고 그 사회적 개인적 대처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

4) 북한 내 신체화 장애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

- 과거의 남한사회에서 볼수 있었던 것 같은 광범위한 심리적 상황의 신체화 증상이 북한 시민사회 내에 만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는 앞의 울분장애와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며, 내과적으로 해석되어 감추어져있는 우울, 불안장애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병리적 연구, 그리고 테라피 모델의 개발과 치료 근거 확립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건의사항

- ※ 사업의 진행,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하여 통일평화연구원 혹은 학교 본부에 게 전달할 건의 사항을 기재
- Covid-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연구자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구 기간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랍.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사전 FGI를 거친 전문 학술자료의 문헌 고찰을 통한 사례연구, 그리고 북한 내 의료인을 대체하는 프록시(PROXY)로 탈북자 중 보건의료 등을 수렴한 정책보고서(도서) 정식 발간 및 출판예정임.
- 통일을 직접 경험한 독일을 비롯한 국외 연구진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통일 관련 해외 전문가들과의 월간 세미나를 통한 통일연구 국내외 다학제적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함.
- 국/내외의 세미나 과정에서 수렴된 강연 자료 및 강의 영상, 탈북민 인터뷰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통일관련 정신건강정책 연구데이터 축적을 통한 차기 발전된 형태의 연구 지속이 가능하도록 함.

□ 성과 자율 지표 (1차 연구연도 기준)

※ 사업 시작일(2021년 3월 1일) 기준 2년 이내 사사표기 된 단행본 예정 1건

[표] 정책보고서 발간 관련 성과지표

연구차수	책자명*	ISBN*	분류번호*	발행일자	발간페이지	
					시작	끝
1차 (2021 년도)	통일 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과 이에 기반한 정책 개발	출간 기재예정	Vol.1	2022.1.30. (예정)	1	282

□ 관련분야 기여도

- 연구 성과 목표인 통일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 구축을 위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향후 통일 과정과 정신건강 연구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아래의 관련분야 기여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달성율 95%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아

래의 표를 참고.)

[표] 세부연구 목표에 따른 비중 대비 연구 기여도 (* 자체평가 포함)

세부연구 목표 (연구계획서상의목표)	비중(%)	연구기여 도(달성도)	자체평가
연구데이터 구축	25%	25%	정기 월간 세미나(총10회)와 더불어 국제 심포지엄(총3회)의 상시 개최를 통한 통일분야 전문가들의 학술 자료와 강연자료, 구체적인 문헌들에 대한 원문 자료를 구축하여 통일과정의 연구데이터 구축을 달성하였음.
학술 보고서(도서) 발간	25%	25%	월간 정례적으로 진행한 국/내외의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연구 자료와 사전 FGI를 거친 전문 학술자료의 문헌 고찰을 통한 사례연구, 그리고 북한 내 의료인을 대체하는 프록시(PROXY)로 탈북자 중 보건의료 등에 관련 종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현장 인터뷰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도서) 발간을 완료하였음.
국내의 학술 세미나	20%	20%	국내 통일 관련 기구의 전문가들과의 월례 정기 세미나 개최과정에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세미나의 내용을 복기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 지식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기 연구에도 지속적인 학술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통일관련 정신건강정책의 국내 학술대회의 기틀을 마련함.
사례연구 및 해외 탐방	20%	15%	독일,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 일국이체제의 중국-대만의 사례연구를 위해 국내의 문헌 조사를 통해 정책 조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한 성과가 있었으나, Covid-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현지 방문을 통한 현장 사례 연구가 시행될 수 없었던 점, 예산 등의 문제로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한 유사 사례와 시나리오의 검토는 차기 연구에서 기약하게 됨.
다학제적 연구네트워크 구축	10%	10%	통일을 직접 경험한 독일을 비롯한 국외 연구진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통일 관련 해외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구축과 정례적 교류를 시행하여 공동 작업의 틀을 구축하였음.
종합 의견	100%	95%	통일과정의 정신건강 영향 모델 구축을 위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향후 통일 과정과 정신건강 연구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아래의 관련분야 기여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달성율 95%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